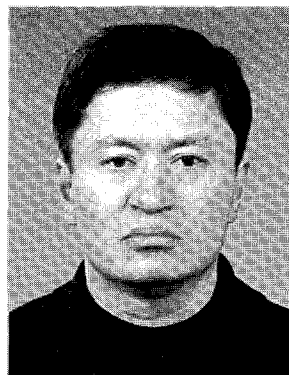


# 싸이로마진 삭제는 농가불편 고려못한 처사로 받아들여져...



이 인 호 글로벌 네트워크

국내에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제정 의 날 제정 안의 통과처리에 따른 억지 주장과 우익인사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호소 다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본인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 30회 반추위 연구회에서 발표되는 항생물질의 사용을 둘러싼 일본의 제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2004년에 발간된 동물약품 관련 서적을 구입함과 동시에 일본의 공무원들에게서 일본의 사료 안전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자비 출장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동경 도와 신주꾸시를 방문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에서 KAL로 1시간 30분을 비행하여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에 다시 JR 나리타 익스프레스 전철로 갈아타고 다시 1시간 30분 뒤에 신주꾸 역에 도착하여 남쪽 출구로 나오니 꽃가루 방지용 특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일본인 남, 녀를 쉽게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재였던 본인은 이를 일본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여 이번 출장에서 본인의 안내를 담당했던 인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 잠시 동안 불안감에 노출되게 되었다.

봄이 되면 일본 열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인 화분증(花粉症)이라 불리는 꽃가루 알레

## | 특집 · 파리방제용 사료첨가제 제한에 따른 정책진단 |



르기 증후군은 일본인 다섯 명 중에 한명 꼴로 환자라 국민병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질 정도이며, 특히 올해는 이 알레르기가 기승을 부려 동경도와 신주꾸시에는 마스크차림의 행인이 급증하여 꽃가루 방지 마스크 제작업체는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희비가 교차되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남벌과 공습 등으로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1950~1970년대에 정책적으로 번식력이 좋은 삼나무 심기를 장려하여 현재 일본 산림면적의 18%가 삼나무 숲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나무는 수령이 20~30년이 되면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목시기를 정해 베어내야 하나 값싼 외국산 목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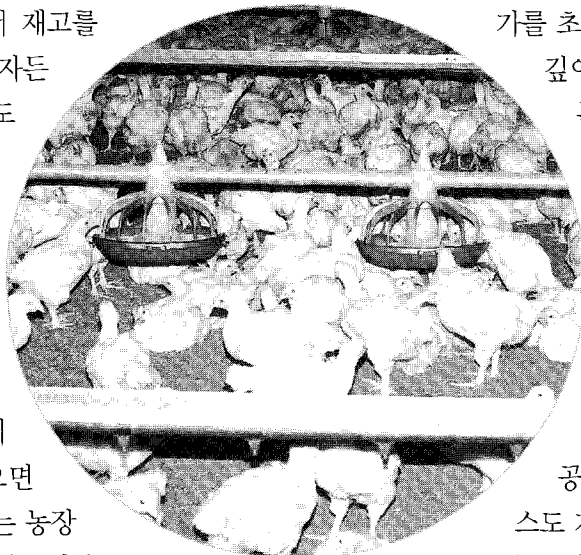
밀려 삼나무의 수요가 거의 없자 그대로 방치하는 실수를 저질러 매년 봄이면 일본 열도를 덮는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니, 무분별한 산림정책이 부른 국민병의 화근의 댓가는 톡톡히 치루는 것 같아 출장을 마치고 귀국 시에는 측은해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일본 현지에서 직접 열도에서 불고 있는 꽃가루 알레르기 열풍의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최근에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법규를 비교해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아 이에 대한 소감을 피력하여 교훈을 삼아 보고자 한다.

금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53종의 사료첨가제에서 삭제가 확정된 28종의 성분의 사용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사용 금지가 되어 시

행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이미 양계농가들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항생물질의 사용량이 우위를 차지할 정도로 항생물질 사용 천국이라는 오명을 국가간의 비교에서 수치로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생물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결정과 유예기간까지도 끝나 시행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재고를 하자든가, 시비를 가리자든가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냐고 하면 선택의 폭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은 백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성분의 특성과 용법, 용량 상 사료공장에서 배합의 협조가 없으면 양계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농장에서 사료배합에 대한 불균일성, 추가 노동력 제공에 따른 불편함, 경제적인 추가 부담, 불확실한 약효의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이로마진(Cyromazine)과 같은 성분을 광범위 항생물질(CTC, OTC등)의 단일 및 복합제나 OECD국가에서 내성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의료계로부터도 내성의 심각성을 경고받고 있으며,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가에서는 모두 삭제하고 있는 페니실린과 같은 성분을 지키기 위해 양계농가의 불편함을 비롯한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삭제하는데 거의 만장일치의 의견을 나타



내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가를 냉철하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미 국내의 관련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미숙하기 이르기 없는 일본 사료안전법(단미, 보조사료)의 적용으로 많은 관련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생산자들에게 집단이기주의적 산물을 선사하는 것은 정책을 주관하는 공직자들과 협력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가를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깊이 통찰해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일본이 무분별한 산림정책으로 삼나무의 벌목시기를 놓쳐 매년 꽃가루 알레르기를 몸소 체험하듯이 대한민국의 양계농가들도 이제는 법적으로는 사료공장에서 어떠한 배합 서비스도 기대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주어진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하거나, 싸이로마진 대체물질의 발견노력을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으니, 이것이 삼나무 정책과 무슨 차이를 느낄 수 있겠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양계농가들의 불편함을 이제는 매년 초래케 한 일부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한 공직자들과 협력자들에 대한 평가는 생산자단체 소속의 축산인들의 몫으로 돌리면서 본인의 의견을 마치고자 한다. **양계**